

제주도 농촌주거의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최재권*

목 차

- I. 서론
- II. 농촌주거의 건축적 특성
- III. 농촌주거의 유형분류
- IV. 농촌주거의 공간변화
- V.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도 주거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은 한국의 다른 지역과 유사한 보편성을 바탕으로 제주도만의 주거환경 요인의 특수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농촌주거의 공간변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농촌주거 연구는 1970년대이래 건축학, 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주거의 배치, 평면유형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물리적 측면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주거의 핵심적이고 역동적 요소인 주생활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 이것은 주거의 주체인 거주자와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실내건축과 조교수

따라서 거주자의 주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를 통해 주거의 물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농촌주거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주도의 농촌사회는 해방이후 30년 동안에 큰 변동을 겪어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감귤등과 같은 고소득 농산물 육성정책과 관광산업정책에 의해 근대적 산업사회를 향한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 팽창 등 도시사회의 변화 뿐 아니라 도시·농촌간의 사회 문화적 격차를 초래 도시요소가 농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제주도 농촌의 도시화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이어 주거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도 농촌주거의 물리적 변화의 연구를 통해 근대화 이전의 주거로부터 현재의 신축주거에 이르는 다양한 주거의 변화요인을 해석함으로서 주거 사적 맥락을 연결짓는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근대적, 현대적 상황 속에서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적응방법을 파악하여 농촌주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전의 주거와 최근 신축된 농가주거를 대상으로 공간 특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봄으로서 바람직한 제주도 농촌주거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대상의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선정기준

주생활에 따른 건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농촌주거를 대상으로 하여 그 변화과정과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위하여

- ㄱ) 제주도 전역에 있는 보편적 농촌주거를 무작위로 선정
- ㄴ) 전통적 요소를 갖춘 농촌지역에 도시적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주거를 선정
- ㄷ) 지속적인 변화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장소에 거주했던 거주자의 주거를 선정

위와 같이 선정된 대상조사는 북제주군 애월읍 12개, 한림읍 13개, 한경면 5개, 대정읍 8개, 남제주군 조천읍 6개, 구좌읍 10개, 성산읍 7개 등 모두 61개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2회¹⁾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²⁾에는 관찰, 면담, 실측, 스케치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조사, 수집된 자료를 각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에 근거하여 조사된 여러 내용 중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³⁾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II. 농촌주거의 건축적 특성

조사대상의 농촌주거에 대한 건축적 요인과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적 요인

1) 건축시기

조사한 농촌주거의 건축시기는 표 1과 같으며 전체조사 대상 61채 중 52채가 1975년 이후에 지어졌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에 들어와 신축주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안정으로 주거의 건축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 1차조사: 1999년7월20일 ~ 1999년7월22일

2차조사: 1999년8월10일 ~ 1999년8월15일

2) 현장조사내용은 주거공간과 생활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과 물리적 측면의 대응관계조사

3)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사주거의 건축요인, 사회·인구학적요인, 평면도, 주거의 변경내용을 추출하였다.

표 1. 건축시기의 분포

건축시기	1970년 이전	1970년 ~1975년	1976년 ~1980년	1981년 ~1985년	1986년 ~1990년	1991년 ~1995년	1996년 이후
사례 수	3	6	8	9	12	16	7

2) 주거의 구조 및 재료

조사한 농촌주택의 구조, 재료는 전통적인 목구조와 시멘트블록조, 벽돌·콘크리트조의 구조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건축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조사 지역의 주거구조의 양상이 1970년대 이전에는 목구조에서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점차 시멘트블록조와 벽돌·콘크리트조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건축시기에 따라 주거의 구조, 재료가 변화한 것은 시대마다 새로운 건축재료가 도시 뿐만아니라 농촌에도 보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건축시기별 구조분포

구조 건축시기	목구조	시멘트블럭조	벽돌·콘크리트조	계
1970년대 이전	3	-	-	3
1970년대	9	4	1	14
1980년대	2	12	7	21
1990년대	1	2	20	23
계	15	18	28	61

3) 연면적

조사 농촌주택의 연면적은 호당 12.3평~56.3평까지로 이중 20평~30평 규모의 주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거주공간의 면적 분포는 표 4에서와 같이 호당 8.1평~21.2평까지로 일반적으로 10평에서 20평 미만의 규모였다. 부속공간은 호당 2.5평~20.3평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것은 영농방식에 따라 부속공간의 필요면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연면적의 분포

연면적	10평~20평 미만	20평~30평 미만	30평~40평 미만	40평~50평 미만	50평~60평 미만	계
사례수	9	34	13	3	2	61

표 4. 거주공간의 면적 분포

거주공간의 면적	10평미만	10평~25평미만	25평이상	계
사례수	3	46	12	61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조사대상의 농촌주거 거주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 세대주의 연령, 가족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1) 세대주 직업조사

세대주의 직업분포는 다음의 표 5와 같으며 직업의 분포는 전업농업이 가장 많았으며 농업겸업, 비농업순으로 나타났다. 전업농업인 경우 밭농사, 밀감재배, 특수작물제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수입증대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농가도 나타났다. 조사주거의 전업농업, 겸업농업, 비농업⁴⁾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인 농촌의 주거 생활 패턴이 점차적으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주거 세대주의 직업분포

직업	농업전업	농업겸업	비농업	무직	계
사례수	31	18	9	3	61

4) 비농업이란 회사원, 상업, 공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2) 세대주의 연령

세대주 연령을 조사한 결과 43세~61세의 장·노년층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분포로 보았을 때 도시근교쪽의 주거일수록 나이의 분포가 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교일수록 앞서 조사한 직업분포와 같이 농사겸업 및 비농업의 분포가 많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직업별 세대주 연령분포

직업 \ 연령	20~39세	40~59세	60세이상	계
농업전업	3	24	4	31
농업겸업	5	11	2	18
비농업	5	4	0	9
무직	0	1	2	3
계	13	39	8	61

3) 가족구조

표 7에서와 같이 가족구조는 주로 부부+자녀의 2세대 핵가족의 구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부부+자녀의 3세대 가족으로 나타났다. 3세대인 경우 제주도의 농촌거주형태는 안팎거리 별동주거로 세대별로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식침을 개별적으로 하는 전통적 관습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가족구조의 분포

가족구조	1세대가족	2세대가족	3세대가족	4세대가족	계
사례수	7	31	18	5	61

III. 농촌주거의 유형 분류

제주도 전지역의 주거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다양함은 너무나 개별적이고 많은 관련요소가 있음으로써 전체적인 주거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위해 농촌주거 변화의 흐름에 초점

을 맞추기 위해 시기적 구분을 일차적으로 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제주도 농촌의 실질적인 근대화를 가지고 온 1970년대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1990년대까지로 하였다. 여기에 구조재료, 평면형태, 공간구성의 분류기준을 통하여 총 세개의 그룹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세 그룹은 발생시기가 연속되어 있어 그룹간의 비교서술이 용이하여 제주도 농촌주거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1. 재래형

재래형은 목구조의 겹집형태로서 제주도 농촌주거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방, 마루, 방에 찻방, 정지가 달린형으로 제주도의 일반형인 일자형을 따르고 있는 유형이며 1970년대 이전까지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3칸, 4칸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방을 더하거나 밖거리의 별채를 가지는 유형을 포함한다.

2. 개량형

개량형은 1980년대 이후 재래형 농촌주거에서 재료가 블록으로 변화되면서 신축되어진 형태로 평면은 재래형 농촌주거와 마찬가지로 현관이 없거나 마루 전면에 현관이 첨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도시형

도시형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도시주거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여 거주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지어졌다. 이 유형은 방, 마루, 식당, 부엌, 현관의 실 구성이 명확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외에 있던 화장실이 실내에 위치하게 되고 식당, 다용도실, 목욕탕, 거실 등이 새로운 공간으로 첨가되었다. 도시형은 재래형의 공간구성 보다 여러 기능을 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자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주 거 유 형					사례수
주거 유형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재래형 1970년대 까지					17
개량형 1980년대					21
도시형 1990년대					23

그림 1. 주거의 유형

IV. 농촌주거의 공간변화

1. 유형별 면적변화

주거면적은 각 유형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형별 주거면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재래형, 개량형, 도시형으로 갈수록 주거면적은 점차 증가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거주공간 상호간에 대한 각 공간의 면적비율은 유형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재래형에 비해서 개량형, 도시형일수록 보다 큰공간을 나타내었다. 각 공간의 면적비율은 유형별로 큰 변화가 없으나 각 공간의 면적이 증가한 것은 전체적인 거주면적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표 7. 유형별 주거면적

유형 공간	재래형	개량형	도시형	전체분포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안방	1.6~ 4.1	2.5~ 3.9	2.7~ 5.4	1.6~5.4
작은방	1.2~ 3.4	1.5~ 4.1	1.7~ 3.3	1.2~4.1
마루	1.2~ 5.9	1.7~ 3.1	3.6~ 6.1	1.2~6.1
부엌·식당	1.3~ 5.0	1.5~ 5.4	2.0~ 5.9	1.3~5.9
전주거공간	5.3~18.4	7.2~16.5	10.0~20.7	-

2. 농촌주거의 공간변화

거주자들은 주생활 요구에 맞게 주거를 변화 시켜왔으며 특히, 재래형의 경우 현대 생활에 맞게 가장 많은 공간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농촌주거의 변화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요구 및 그 변화동향을 파악해 본다. 조사주거의 61사례 중 주거변경을 한 사례는 54사례이다. 그 변경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즉, 새로운 공간의 신축에 따른 변경은 19개, 기존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바꾼 변경 8개, 기존의 공간을 증축하거나 감축시킨 변경 27개, 기존의 공간용도를 바꾸지 않고 공간의 시설 및 설비, 재료 등을 바꾼 개축의 변경 46개이다.

이와 같은 주거변경은 안방에 대한 증축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부엌, 거실, 다용도실 등의 변경이 주생활 요구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주거의 공간변화는 1970년 후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 제주도 농촌주거의 공간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방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큰방이 안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생활행위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곳이다. 개량형과 도시형은 비교적 증축이 없으나 재래형은 안방의 증축이 많았다. 이러한 안방의 증축의 주원인은 새로운 가구의 도입으로 인한 생활장소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안방 문의 형태에도 재래형은 미서기문이 대부분이었으나 개량형에서는 미서기문과 여닫이문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도시형에서는 여닫이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서기문을 설치할 경우 집안행사시 방문을 떼어 마루와 방을 이어서 사용했던 것이며 가정내의 행사가 줄어든 현대에는 그런 필요성 대신 프라이버시에 의한 밀폐성의 요구가 더 증대되어 여닫이문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유형에서 하나 이상의 방은 집안의 제사 등과 같은 대소사시를 대비하여 미서기문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2) 마루

마루는 통로, 손님접대, 식사, 작업등 다용도공간으로 사용되어 왔고 과거에는 외기 에 면하여 있던 것이 점차 내부 공간화 되어왔다.

마루의 이용에 도시형은 입식가구가 놓여짐으로 마루가 도시주거의 응접실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높았고 재래형, 개량형은 마루에 냉장고, 밥솥 등 주방용품이 배치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재래형 부엌인 경우 전기콘센트가 없고 장소가 비좁은데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또한 마루가 거실의 기능의 정착보다는 통로 및 여유공간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부엌

부엌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장소이다. 개량입식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재래형의 부엌개량은 연탄보일러로 난방방식이 개량된 때 주로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볼 때 난방방식의 변경이 부엌개량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취사열원과 난방열원의 분리가 부엌개량의 시초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난방방식은 장작, 연탄,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등의 발전단계를 보이는데 장작과 연탄난방 단계에서는 난방의 열원과 취사의 열원이 분리되지 않았었으나 연탄보일러

또는 기름보일러 시설 등이 생기면서 난방열원과 취사열원이 분리되었다. 열원의 분리에 의해 부엌 취사연료인 가스가 도입이 되고 이것은 부엌의 작업대가 완전입식화 되는 것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식화는 식탁의 설치로 이어져 식사행위의 입식화를 초래하여 부엌에 식당이 배치되는 D·K형태로 변화되었다. 부엌개량으로 인한 식탁의 도입은 주로 개량형과 도시형 주거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입식에 따른 편리성이 점차 정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43%가 식탁을 이용하지 않으며 여름에는 마루를 이용하는 경우를 볼 때 전통적인 좌식의 기거양식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식탁의 도입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주부노동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부엌의 개량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류	재래형	개량형	도시형
유형			
설비	급배수설비없음 취사난방: 장작+연탄	개수대 설비68cm미만 취사난방: 연탄+석유	개수대80cm이상 취사난방: 석유+가스
시설	작업대 없음 바닥차 있다(25cm이상)	개량식작업대(60-80cm) 바닥차없다(25cm미만)	입식작업대(80cm이상) 바닥차없다(25cm미만)

그림 2. 부엌의 유형화

또한, 사례의 대부분에서 물부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부엌의 출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진다.

- ㄱ) 외부에서 직접부엌으로 출입하거나 물부엌을 통해 출입하는 형
- ㄴ) 내부에서 부엌으로 출입하고 외부에서 물부엌을 통해 출입하는 형
- ㄷ) 내·외부에서 직접 부엌으로 출입하는 형

4) 화장실, 욕실

화장실의 실,内外 배치를 파악한 결과 내부에만 있는 경우 10개, 내·외부에 있는 경우 37개, 외부에만 있는 경우 14개로 내·외부 설치의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의 개량은 재래형인 경우에는 실내로 들어오는 사례수가 매우 적었는데 그 이유는 물을 쓸

수 있도록 배관설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개량형 이후 화장실의 내부화를 통해 욕실의 실내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 욕실을 실외에 두는 경우도 있다. 세면, 목욕, 빨래 등의 행위에 따른 실배치는 외부에서 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래형과 개량형에서 주로 나타나고 실내에 욕실이 들어와 정착되는 경우는 도시형에서 나타났다.

5) 마당

마당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전 탈곡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곡물, 고추, 야채류를 말리기 위한 장소로서 기능은 남아있다. 또한 마당은 생산작업의 공간일 뿐 아니라 비일상 행사시에 사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직도 상례와 혼례시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때에는 마당에 명석을 깔고 의식공간 및 손님접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유형별 농촌주거의 변화내용

건축시기별로 분류한 3가지 주거유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평면변화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의 요구에 의한 주거 변화는 주로 재래형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재래형은 공간의 개축, 증축, 신축 및 용도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재래형은 주로 부엌의 개축이 이루어졌고 방의 증축, 수납공간의 신축, 화장실, 욕실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이는 앞서 살펴본 주택전체에 대한 변화내용의 순서와도 일치한다.

개량형, 도시형은 재래형에 비해 변화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신축에 있어서도 수납공간, 화장실의 신축이고 용도의 변경에서는 건축당시 욕실로 계획한 공간을 방으로 변경한 것이며 증축에서는 방, 개축에서는 부엌의 개축이다.

유형별 변경 사례는 개량형, 도시형이 약 1/3정도이고 그 건수도 호당 개량형은 약 1.8건, 도시형은 약 0.9건으로 그 수가 재래형에 비해서 매우 적었다. 그러나 재래형은 그 건수도 상당히 많아 평균 호당 약 5.8건 정도였다.

이와 같이 재래형은 개량형, 도시형에 비해 그 변화가 많은데 이것은 재래형의 건축 년도가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농촌주거의 구성이 현재의 생활에 적절하

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표 8. 유형별 공간변화내용

유형 내용	재래형	개량형	도시형
초기 주거 공간 구성	안방, 마루, 작은방, 챗방, 정지+변소, 부속사	안방, 마루, 작은방, 방, 부엌+변소, 부속사	안방, 작은방, 방, 거실, 부엌, 식당, 화장실, 욕실+부속사
변경 내용	신축-욕실, 물부엌, 보일러실 용도변경-챗방이 방으로 정지가 부엌, 식당으로 증축-방, 부엌 개축-마루, 부엌	신축-욕실, 물부엌, 수납공간 용도변경-욕실이 방으로 증축-안방 개축-부엌	신축-수납공간 개축-방
공간 구성의 변화	공간의 내부화 공간크기의 증대 공간의 시설·설비변화 부엌의 증축, 고저차의 향상	공간기능의 분화로 방수 증가 공간크기의 증대 부엌의 시설·설비변화	부속공간의 발전 다용도실의 등장

V. 결 론

도시화, 근대화로 제주도의 농촌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특성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동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전지역의 주거를 조사한 결과 총 세 개의 그룹 즉, 재래형, 개량형, 도시형의 주거 유형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세 그룹은 발생시기가 연속되어 있어 비교가 용이하였다. 주거유형은 거주자의 주생활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중에서 재래형은 현대생활에 맞게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인 제주도 농촌주거의 변화동향을 파악해 보면

첫째, 안방에 대한 증축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안방의 증축의 주원인은 새로운 가구의 도입으로 인한 생활장소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둘째, 도시형은 입식가구가 놓여짐으로 마루가 도시주거의 응접실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재래형, 개량형은 통로 및 여유공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엌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장소이며 부엌의 개량은 난방방식의 개량과

큰 연관을 가졌다. 또한 난방열원과 취사열원이 분리되면서 부엌이 입식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완전입식으로 개량된 경우 상당수가 식탁이 부엌에 놓임으로 인하여 D·K의 형태로 변해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화장실의 개량은 재래형인 경우에는 실내로 들어오는 사례수가 매우 적으며 개량형 이후 화장실의 내부화를 통해 욕실의 실내화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마당의 기능은 곡물 건조기능과 비일상행사시에 사용되는 다용도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형별 농촌주거 변화는 주로 재래형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개량형, 도시형은 재래형에 비해 변화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래형 주거의 건축년도가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의 생활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농촌주거 변화는 거주자의 생활요구, 생활양식의 변화, 취사, 난방 연료변화, 시설·설비의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래형, 개량형, 도시형주거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거형태가 도시주거 스타일로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제주도 농촌주거계획은 이러한 도시·농촌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나남출판, 1995.
-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오흥철,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89.
- 윤원근, 「한국농촌계획론」, 대학출판사, 1999.